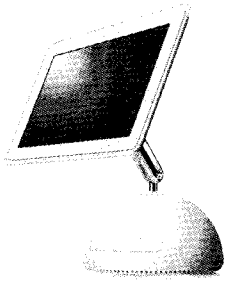
제2차 APG-11 회의

위규진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과장
박주홍 |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연구사
김종년 | 한국전파진흥협회 산업지원팀 과장
정용준 | TTA 표준화본부 전파방송팀 과장



1. 머리말

APT(Asia-Pacific Telecommunity)는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를 대비하여 WRC 관련 모든 의제에 대해 APT 회원국의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WRC에 제출할 의제별 공동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APG[1]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금번 APG-11 회의는 2011년에 개최 예정인 WRC-11에 대응하기 위한 2번째 회의로 2009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중국 항주에서 개최되었다. APT의 25개 회원국과 전파통신 분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WRC-11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공동입장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전파연구소 위규진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3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33개 WRC-11 의제 중 21개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해 당사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APT 공동입장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APT 공동의견 도출을 위해 구성되는 작업반(WP: Working Party) 및 실무작업반(DG: Drafting Group) 등 의장단[2] 활동을 통해 APG 회의 진행을 주도하고 회의 기간 중, 중국, 일본, 유럽 및 미국과의 수석 대표단 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 의제를 발굴하고 향후 WRC 대응 공동 협력을 강화하였다.

2. 주요 의제별 회의 결과

이번 회의는 APG 의장(알란 제이미슨, 뉴질랜드)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업무별로 6개 WP을 운영하고 각 WP는 DG을 구성, 해당 WRC-11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입장 초안을 작성하고 WP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Plenary)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각 WP별 주요 의제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1 무인항공기 주파수 분배(의제 1.3)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이용 증가에 따라 장거리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주파수 분배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를 지지하나, 필

1) APT APG 웹사이트: http://www.apt.int/Program/APG/papg.html
2) 우리나라는 APG 부의장(위규진 과장), WP3 의장(성향숙), DG 의장(5명 : 김경미, 이황재, 박종민, 정현수, 이중근) 등 의장단 활동 수행

〈표 1〉 APG-11 WP 구성도

WP	주요 내용	의제	의장
WP1	해상 · 항공 이슈	1.3, 1.4, 1.9, 1.10	닌햄(호주)
WP2	무선측위 및 아마추어 이슈	1.14, 1.15, 1.21, 1.23	파이사(말레이시아)
WP3	고정, 이동, 및 방송 이슈	1.5, 1.8, 1.17, 1.20, 1.22	성향숙(한국)
WP4	과학 이슈	1.6, 1.11, 1.12, 1.16, 1.24	자오(중국)
WP5	위성 이슈	1.7, 1.13, 1.18, 1.25, 7	아베(일본)
WP6	향후 계획 및 기타 이슈	1.2, 1.19, 2, 4, 8.1, 8.2	샤피(이란)

요 이상의 주파수가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APT 회원국은 무인항공기 운행을 위한 주파수의 분배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후보 대역은 기존의 항공이동, 항공이동위성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주파수를 이용하고 향후 ITU-R WP5B(항공업무)에서 지속적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또한, 무인항공기 탑재체의 송 · 수신기 주파수 수요는 이번 WRC-11 의제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아태지역 공동입장을 정리했다.

2.2 790~862㎒대역 이동업무와 타 업무 간의 공유 (의제 1.17)

동 대역이 WRC-07에서 1지역(유럽지역) 이동업무로 추가 분배됨에 따라 이동업무와 기존 방송업무와의 공유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WRC-07 이전부터 동 대역을 이동업무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유럽의 문제를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제안하여 3지역 이동업무에 대한 전파규칙 규제 신설은 하지 않는 것에 아태지역 국가의 동의를 얻었으며,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ITU-R 담당 연구반 (JTG 5-6)에 동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2.3 21㎓ 대역 방송위성업무 이용방안 검토(의제 1.13)

H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21㎓ 대역 방송위성의 제원과 관련하여 유럽은 위성 전력속 밀도값(-105(dBW/m^2 · 1㎒))이 과도하므로 출력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강수량이 많은 아시아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성에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전력속밀도값이 -105(dBW/m^2 · 1㎒)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공감하고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개발했다.

2.4 해수면 관측 레이더용 주파수 분배(의제 1.15)

해수의 파고 등 해수면 관측용 레이더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3~50㎒ 대역 주파수 분배 검토에 대해, 우리나라는 해당 대역 주파수가 현재 공공통신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기존 업무와의 양립성이 입증되어야 주파수를 분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을 반영하여 해수면 관측 레이더의 주파수 분배는 ITU-R의 공유 연구 결과 및 기존 업무와의 양립성 입증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로 공동입장을 정리했다.

2.5 소출력 무선기기의 전파발사에 의한 영향 검토 (의제 1.22)

소출력 무선기기의 전파발사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다른 전파통신업무 보호를 위한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출력 무선기기의 활성화를 위해 전파규칙에 의한

규제보다는 권고서에 의한 국가 자율 규제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란, 일본 등의 지지로 '소출력 무선기기의 국제적 규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우리나라 입장을 아태지역 공동 입장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소출력 무선기기의 국제적 주파수 통일을 위해 전파규칙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3. WRC-11 일정 이슈 및 차기 회의 일정

ITU에서는 당초 2011년 2월 예정이었던 WRC-11 회의 일정을 아랍국가의 금식기도(라마단) 및 ITU의 회의장 확보 문제로 2012년으로 일정을 변경[3]하여 ITU 회원국의 최종 의견을 2009년 8월 3일까지 요청했다. 이에 대해 APT 회원국들은 WRC-11 변경 일정안이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지역 설날 명절과 겹치므로 ITU의 제안 일정보다 2주 이후로, 변경 요청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APT 사무총장이 ITU 사무총장에게 WRC 일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각 APT 회원국이 ITU 사무국에 별도 의견을 제출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향후 제3차 APG11 회의는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우리나라는 2011년에 WRC-11 이전 APG 마지막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아태지역 최종 공동제안서 개발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4. 맺음말

WRC-11 의제에 대한 APT 공동 입장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고 APG 부의장, 주요 작업반 및 실무작업반 의장을 우리나라가 담당하여 아태지역 Opinion leader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APG-11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아태지역에서 주도국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새로운 의제를 발굴 · 주도하여 시장 개척을 도모하는 등 향후 한 차원 높은 WRC 대응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올해가 APT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APT에서는 200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PT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창립 30주년 기념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APT 3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APT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 활동을 제안 · 주도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이후에도 ITU 등 글로벌 협력 준비활동과 지역 내 협력 활동 간의 전략적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다. 특히, 동남아시아, 몽골 등 개도국과의 APG 공동 협력 강구 등 IT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파방송 기술, 전파관리 등의 노하우 제공을 통한 미래 비젼 공유로 역내 영향력을 제고하고 APT 활동을 아태지역 시장 진입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TTA

3) WRC-11 일정 변경안: WRC-11(2012.1.23~2.17) 및 RA(전파총회, 2012.1.16~1.20)